<h1>나 혼자만 레벨업-58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s654ea7fbb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8화</p>  
<p>'됐다.'</p>  
<p>진우는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처음엔 당황하던 안상민 과장도 사정을 듣더니 흔쾌히 오케이 했다. 덕분에 백호 길드 신입들의 레이드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.</p>  
<p>'차도 빌렸고.'</p>  
<p>유진호가 바쁜 와중에도 나와 주었다.</p>  
<p>잠시 빠져나온 거라며 깍듯하게 인사하고 급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그렇게 준비는 끝났다.</p>  
<p>지금 진우는 그 문제의 학생이 산다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다.</p>  
<p>'우리 집이랑 가깝네?'</p>  
<p>걸어서 2분.</p>  
<p>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다.</p>  
<p>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낡은 아파트들이 오밀조밀 밀집된, 좁은 동네.</p>  
<p>그 애의 집안 형편 또한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헌터가 됐다고 들뜨는 심정도 이해는 갔다.</p>  
<p>한때는 진우도 그랬으니까.</p>  
<p>'하지만 그런 녀석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.'</p>  
<p>본인도 숱하게 다쳤다.</p>  
<p>까딱하다 죽을 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. 어머니가 희귀병에 시달리지 않으셨다면 절대 안 했다.</p>  
<p>E급 헌터에게 던전이란 너무 잔혹한 곳이었다.</p>  
<p>이대로 놔두면 분명 그 친구는 헌터가 된 걸 후회하게 된다.</p>  
<p>어쩌면 후회할 시간도 없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'물론 그게 드문 일은 아니지.'</p>  
<p>헌터가 죽고 다치는 사고야 하루에도 수십 번은 일어나닌가.</p>  
<p>그들 모두를 말릴 수도 없고,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.</p>  
<p>각자가 선택한 길 아닌가.</p>  
<p>'하지만.'</p>  
<p>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이면 모를까 그 문제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.</p>  
<p>진우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.</p>  
<p>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올리니 마침 그 문제아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.</p>  
<p>동그랗게 말아 올린 머리, 약간 까칠해 보이는 눈매.</p>  
<p>아는 사람이 맞다.</p>  
<p>"어?"</p>  
<p>여고생이 진우를 발견하고서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?"</p>  
<p>진우가 그랬듯이 여고생 또한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다.</p>  
<p>'세상 참 좁다니까.'</p>  
<p>진우를 검지로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헌터가 되겠다는 여고생.</p>  
<p>유진호 공대팀의 유일한 여성 멤버이자 미성년자로, 나이 때문에 팀에 넣어도 괜찮을까 걱정됐던 애였다.</p>  
<p>-애를 데려와도 괜찮냐?</p>  
<p>-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. 그냥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엄청 커져서 잘 안 쓸 뿐이랍니다.</p>  
<p>'한송이.'</p>  
<p>진아의 담임에게 그 이름을 들었을 땐 만감이 교차했었다.</p>  
<p>혹시나 몰라 확인해 봤다.</p>  
<p>한송이가 학교를 빠지기 시작한 시기도 유진호 공대팀이 레이드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.</p>  
<p>이쯤 되니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해 버리기도 조금 애매해졌다.</p>  
<p>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다.</p>  
<p>괜히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한테 큰 돈을 쥐여 줘서 헛바람이 자리 잡는데 일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'적어도 하나는 확실하지.'</p>  
<p>언제가 됐든 한송이가 던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찝찝해질 거란 사실.</p>  
<p>잘못한 것도 없는데 잠자리가 뒤숭숭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?</p>  
<p>그래서 딱 오늘 하루만 시간을 내주기로 했다.</p>  
<p>어려운 일도 아니니까.</p>  
<p>"어떻게 된 거예요?"</p>  
<p>한송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우를 올려다보았다.</p>  
<p>그러다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설마 선생님이 소개해 주고 싶다는 헌터가 아저씨?"</p>  
<p>자꾸 아저씨라고 하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그러자.</p>  
<p>"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제 학교는 관심 없어요. 헌터를 관둘 생각도 없고요."</p>  
<p>한송이가 딱 잘라 말했다.</p>  
<p>공격대에 있을 땐 조용한 아이였는데 자기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변했다.</p>  
<p>주관이 뚜렷한 요즘 애들답다고 할까?</p>  
<p>'그런데 그 주관이 뚜렷한 요즘 애라는 거 우리 집에도 하나 있거든.'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나름 강하게 나간다고 나갔던 한송이는 예상과 전혀 다른 진우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.</p>  
<p>진우는 담담히 말했다.</p>  
<p>"나도 관두라고 말할 생각 없어."</p>  
<p>한송이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네?"</p>  
<p>이런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 드는 법이다.</p>  
<p>처음부터 대화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그냥 딱 한 번만 현실을 보여 주기만 하면 된다.</p>  
<p>'나도 그랬으니까.'</p>  
<p>첫 레이드 때 깨달았다.</p>  
<p>현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정하다는 사실을.</p>  
<p>한송이는 최대한 당혹감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다.</p>  
<p>"그, 그럼 여긴 왜 오신 거예요?"</p>  
<p>진우가 한 발짝 다가갔다.</p>  
<p>한송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려다 겁먹은 것처럼 보일까 봐 억지로 참아 냈다.</p>  
<p>한송이 앞에 선 진우.</p>  
<p>의도하지 않았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지만,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널 훌륭한 헌터로 만들어 주려고."</p>  
<p>\*\*\*</p>  
<p>던전에 가자고 힘들게 꼬드길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무려 '백호 길드'의 신입 훈련을 바로 옆에서 볼 기회가 있는데 어쩔 거냐고 묻자마자 좋다고 따라왔다.</p>  
<p>진우의 말을 의심도 없이 믿는 눈치였다.</p>  
<p>아저씨가 어떻게 선생님을 아느냐는 질문에 진아와 함께 투샷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 준 게 컸다.</p>  
<p>"아저씨가 진아 오빠였어요?"</p>  
<p>"..."</p>  
<p>아까부터 단어 하나가 묘하게 거슬리고 있었지만 다 계획대로 잘돼 가는 터라 참고 넘어가 줬다.</p>  
<p>"타."</p>  
<p>"감사합니다!"</p>  
<p>진우는 한송이를 태우고 백호 길드의 저녁 훈련이 있을 장소로 이동했다.</p>  
<p>9시에 훈련을 시작한다고 했으니 아직 시간은 충분했다.</p>  
<p>부르릉.</p>  
<p>두 사람만 타기에는 너무 큰 검은 승합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.</p>  
<p>민첩과 감각이 올라서일까?</p>  
<p>면허만 따 놓고 차를 굴려 본 적도 없는데 운전이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조금만 집중해도 차들이 굼벵이처럼 느리게 느껴졌다.</p>  
<p>'능력치 스탯이 여러모로 편리하네.'</p>  
<p>옆에서 한송이가 물었다.</p>  
<p>"진아는 진짜 집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? 소문에는 벽지 대신 사전을 찢어 붙여서 잘 때도 단어 외우면서 잔다던데."</p>  
<p>진아한테 그런 소문이 있었나?</p>  
<p>집에선 그냥 치킨 좋아하는 잠순이인데.</p>  
<p>"진아도 너희랑 같아. 집에 오면 놀고, 먹고, 자."</p>  
<p>주로 자지만.</p>  
<p>"에이... 거짓말. 그런데도 성적이 그렇게 나와요?"</p>  
<p>"나도 안 믿긴다니까. 중학생 때 나하고 같이 오락실이나 다니던 앤데."</p>  
<p>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게이트 근처에 도착했다.</p>  
<p>진우는 차를 세웠다.</p>  
<p>끼익.</p>  
<p>게이트 집중 생성 구역으로 지정된 동네였다.</p>  
<p>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서 차를 대기는 편했다.</p>  
<p>듣기론 주택 8할이 폐가라고.</p>  
<p>남은 사람이 다 떠나고 나면 구역 전체를 폐쇄한다는 소문이 있었다.</p>  
<p>탁, 탁.</p>  
<p>진우와 한송이가 차에서 내렸다.</p>  
<p>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음산한 분위기가 흘러넘쳤다.</p>  
<p>우우우-</p>  
<p>어쩐지 발밑 그림자 속에서 환호성이 들린 것 같은데.</p>  
<p>기분 탓이겠지?</p>  
<p>적막한 분위기에 조금 겁먹은 거 같았던 한송이도 멀리 모여 있는 헌터들을 보고는 금방 기운을 되찾았다.</p>  
<p>눈이 반짝거리는 게 꼭 연예인들을 보는 것 같았다.</p>  
<p>'하긴 초대형 길드 백호의 헌터들이니.'</p>  
<p>헌터를 동경하는 학생에게는 연예인이나 다름없나?</p>  
<p>방송에서 보여 주는 헌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.</p>  
<p>"오, 진짜 오셨네요."</p>  
<p>진우를 발견한 현기철이 뛰어왔다.</p>  
<p>"저 기억하시죠?"</p>  
<p>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현기철의 미소가 영업용이 아니라 진짜 반가워해서 나온 거라는 게 느껴져 진우도 절로 웃음이 나왔다.</p>  
<p>몇 번 안 봤지만 성격은 참 좋은 사람인 듯했다.</p>  
<p>"과장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. 아, 이 학생이 그?"</p>  
<p>"안녕하세요."</p>  
<p>한송이가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근육질의 덩치가 와서 신경질적으로 툭 쏘아붙였다.</p>  
<p>"잡담은 고만하고 슬슬 시작합시다. 어디 소풍온 것도 아니고, 벌써 9시 다 됐으니까."</p>  
<p>그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다시 게이트 앞으로 돌아갔다.</p>  
<p>예사롭지 않은 기운.</p>  
<p>진우는 현기철에게 물었다.</p>  
<p>"누굽니까?"</p>  
<p>"아, 요번에 새로 들어온 A급 신인인데, 양해를 부탁드렸더니 기분이 좀 상한 모양이에요. 던전에 놀러 가는 거냐고."</p>  
<p>"A급?"</p>  
<p>현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. 콧대 높은 A급이라면 그럴 만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물었다.</p>  
<p>"이번 공격대 멤버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죠?"</p>  
<p>"A급 한 명, B급 일곱 명, C급 네 명으로 전부 12명입니다."</p>  
<p>"C급 게이트를 공략하는데 A급, B급을...?"</p>  
<p>"등급이 높긴 해도 신인은 신인이니까요. 일단 던전 경험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."</p>  
<p>현기철이 가슴을 펴고 말했다.</p>  
<p>딱 하루, 오늘 훈련을 마치면 바로 상급 던전으로 투입하게 될 즉시 전력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.</p>  
<p>'그래도 A급 하나에 B급이 일곱이라니.'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달라졌다.</p>  
<p>사실 안상민 과장이 오케이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.</p>  
<p>백호 길드의 뛰어난 신인들을 보여줘서 진우의 마음을 백호 쪽으로 한 번 돌려 보려고.</p>  
<p>하지만 안상민이나 현기철의 기대와 달리 진우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게이트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게이트 판정은 C급.</p>  
<p>그에 비하면 멤버가 너무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신다.</p>  
<p>'레이드가 너무 쉬우면 효과가 떨어질 텐데.'</p>  
<p>그게 걱정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아니, 그래도 직접 보면 느낄 수 있겠지.'</p>  
<p>E급 헌터가 던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.</p>  
<p>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다.</p>  
<p>"저희는 언제 들어가요?"</p>  
<p>진우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는 한송이는 어서 들어가자고 보채 왔다.</p>  
<p>옆을 돌아봤더니 잔뜩 상기된 얼굴이었다.</p>  
<p>'언제까지 들뜰 수 있나 보자.'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고서 현기철에게 말했다.</p>  
<p>"저희도 가 보겠습니다."</p>  
<p>"아, 네."</p>  
<p>현기철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진우에게 살짝 귓속말했다.</p>  
<p>속닥속닥.</p>  
<p>"저기, 성진우 헌터님이 나서면 너무 레이드가 쉬워지니까 오늘은 구경만 해 주세요."</p>  
<p>견학이 목적이었으니 당연한 이야기였다.</p>  
<p>"그렇게 하겠습니다."</p>  
<p>내일부터는 또 유진호와 함께 C급 인던을 신나게 돌게 될 텐데 백호 길드의 훈련을 방해해서야 쓰나.</p>  
<p>다만 유진호와 있을 때는 그림자병사들을 써서 던전들을 공략할 계획이어서 한송이를 이리로 데려왔다.</p>  
<p>'굳이 이런 일에 그림자병사들을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.'</p>  
<p>그림자들로 쉽게 마수들을 때려잡는 걸 보이면 오히려 한송이의 환상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니까.</p>  
<p>진우와 한송이.</p>  
<p>두 사람은 게이트 앞으로 갔다.</p>  
<p>아까 A급 헌터와 달리 의외로 반기는 사람도 있었다.</p>  
<p>"안녕하세요."</p>  
<p>"반갑습니다."</p>  
<p>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한 레이드가 아니어서,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일이었다.</p>  
<p>관례대로 서로 소개를 나누었다.</p>  
<p>A급 헌터의 차례가 돌아오자.</p>  
<p>"나는 됐어."</p>  
<p>그는 먼저 게이트로 들어가 버렸다.</p>  
<p>"우리도 들어가죠."</p>  
<p>백호 길드 신입들이 하나둘 게이트로 들어갔다.</p>  
<p>한송이가 들어가기 직전 진우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아저씨는요?"</p>  
<p>진우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.</p>  
<p>"너 들어가는 거 보고."</p>  
<p>한송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뛰어들었다.</p>  
<p>'흠.'</p>  
<p>진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게이트 앞에 섰다.</p>  
<p>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현기철이 손을 흔들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시선을 다시 게이트로 옮겼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...?'</p>  
<p>게이트 표면의 울렁임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'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다시 검은 막처럼 고정돼야 하는데?'</p>  
<p>지금은 물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.</p>  
<p>뭔가 다르다.</p>  
<p>진우는 손끝으로 표면을 찍어 보았다.</p>  
<p>쭈욱.</p>  
<p>표면이 마치 끈끈한 액체처럼 손가락 끝에 붙어 딸려 올라왔다.</p>  
<p>'설마...?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진우와 현기철의 시선이 마주쳤다.</p>  
<p>현기철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.</p>  
<p>진우가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"메인 공격대에 전화해요, 당장!"</p>  
<p>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게이트에 빨려 들어갔다.</p>  
<p>"뭐, 뭐야 저거?"</p>  
<p>"혀, 현 대리님!"</p>  
<p>현기철이 게이트 앞으로 달려갔다.</p>  
<p>백호 길드의 직원들 셋도 다급히 그 뒤를 따랐다.</p>  
<p>게이트 앞에 선 현기철이 경악했다.</p>  
<p>"마... 말도 안 돼!"</p>  
<p>헌터들만 신인이 아니다.</p>  
<p>직원들도 교육을 위해 신입들로 데려온 것이다.</p>  
<p>당연히 이런 일은 생소했다.</p>  
<p>직원들이 토끼 눈을 뜨고 현기철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대, 대리님! 게이트 표면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어요!"</p>  
<p>핏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, 게이트 표면에 붉은색이 번지고 있었다.</p>  
<p>현기철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.</p>  
<p>딸깍.</p>  
<p>-어, 기철아.</p>  
<p>"과장님! 레드 게이트입니다! 지금 애들이 들어간 게이트가 레드 게이트로 변했어요!"</p>  
<p>-뭐?</p>  
<p>안상민의 목소리가 과격해졌다.</p>  
<p>-무슨 소리야? C급에서 어떻게 레드 게이트가 나와!</p>  
<p>현기철은 고개를 들어 완전하게 붉게 변한 게이트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이미 표면의 파동은 멈춰있었다.</p>  
<p>현기철은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"저도 모르겠습니다... 하지만 분명 레드 게이트입니다."</p>  
<p>-뭐!?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